

이통3사 미래 먹거리 'UAM' 경쟁 뜨겁다

(도심항공교통)

SKT, 한화시스템 등과 드림팀 구성
제주서 2025년 국내 첫 상용화 목표
KT는 현대차와 미래 모빌리티 혈맹
LGU+, 카카오·GS·부산시 손잡아

'도심항공교통'(UAM)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이동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UAM에 필수인 첨단 이동통신 기술을 갖춘 통신기업들도 경쟁에 합류했다. 이동통신 3사는 기체 제작 기업과 공항 등 관련 기업들과 손잡고 UAM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SKT, 제주도서 2025년 상용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공사 등과 함께 'K-UAM 드림팀'을 구성한 SK텔레콤은 제주도에 2025년 국내 첫 UAM 상용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시범운행 서비스를 위해 버티포트(이착륙장)와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주도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도에서 현재의 항공 시스템, 인프라 등을 수정·보완해 사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제주 UAM 시범사업을 위해 미국 조비에비에이션 협력체계 기반 UAM 서비스 제공과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운영, UAM용 통신 시스템 등



SK텔레콤이 부산국제모터쇼에 출품한 UAM의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 | SK텔레콤

을 담당한다. 한국항공공사는 버티포트 구축과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과 제조·판매·운영·유지보수, 제주도는 운용부지·인프라 제공 등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5G 인프라·서비스 플랫폼·양자암호 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용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관계사 티맵모빌리티와의 시너지를 통해 UAM 운항 노선과 버티포트 입지 선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CEO)는 "친환경 관광명소인 제주도를 UAM의 혁신 기반으로 성장시켜 미래 모빌리티의 서비스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며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도 앞다퉀 진출

KT는 현대자동차,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과 손을 잡았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최근 상호 지분 교환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협업을 구축해 눈길을 모았다. KT는 7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차그룹과의 향후 협력에 대한 실행력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분 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KT 자사주 약 7500억 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 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 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한다. KT와 현대차그룹은 한국형 UAM 사업 참여를 위해 2020년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 GS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7월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GS칼텍스, 제주항공, 부산광역시 등과 UAM 상용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스마일페이'를 알리고 있다. G마켓은 이마트에 스마일페이 간편결제 도입하는 등 신세계와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지마켓

이마트서 '스마일페이' 간편결제 가능 G마켓,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첫 구축

G마켓이 신세계와의 시너지를 높인다. 이번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이마트에 도입했다.

G마켓은 전국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을 비롯해 노브랜드 매장, SSG푸드마켓 등에서 스마일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이마트 성수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에서 테스트를 한 뒤 이마트 전점으로 확대했다. 스마일페이 전용 앱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일페이는 결제 편의를 제공하면서, 추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스마일페이 앱에서 캐시충전결제 및 스마일카드 결제 시 최대 2% 스마일캐시를 자동 적립해준다. 스마일캐시는 G마켓과 옥션을 비롯한 스마일페이 모든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G마켓은 신세계그룹 편입 후 그룹 관계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을 새롭게 출범했으며, 이마트·SSG닷컴과 함께 경쟁력 있는 제조사의 신상품을 단독 선판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를 함께 했고, 지난달에는 택배 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일프레시' 전용관을 열었다.

스마일페이의 이마트 도입은 쇼핑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영역에서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융합한 디지털 신세계를 가속화하면서, 고객 접점 모든 곳에서 신세계를 만나는 '신세계 유니버스'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 게 지마켓 측 설명이다.

김지현 G마켓 SP제휴마케팅팀장은 "오프라인 장보기 대표인 이마트와의 서비스 연계로 스마일페이의 고객 접점이 크게 확대됐다"며 "결제 편의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태양광 발전소 구축...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내는 LG전자

GS EPS 손잡고 창원 공장에 설치
전기 직접 전달하는 비계통연계형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

LG전자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한다. GS그룹 산하 발전회사와 손잡고 경남 창원 공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

LG전자와 GS EPS는 16일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방식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GS EPS는 창원 'LG스마트파크' 건물 옥상에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LG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해 사



LG스마트파크 건물 옥상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

사진제공 | LG전자

용한다.

이 발전소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바로 거래하는 직접 PPA에서 한발 더 나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비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RE100(기

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LG전자와 GS EPS가 처음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으로 전력이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전의 망 사용료나 별도 전용 송전선 설치비 등 추가 비용이 절감된다. GS EPS는 공간 효율성 등을 감안해 1만여 장의 태양광 패널을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옥상에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패널 면적만 약 2만㎡로 축구장 3개에 달하는 크며, 연내 1차 준공을 완료해 운

영을 시작한다. 발전소는 총 5MW(메가와트)급 규모로, 연간 생산 전력량은 약 6600MWh다.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력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기대된다.

LG전자와 GS EPS는 이번 사업이 탄소 중립(넷제로)과 RE100같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설비 구축과 합리적 전기료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50년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9일 (월) 음력: 8월 2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실속은 있는 날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오늘은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니 조심하라.	친구나 동료 간에 차질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피라. 복권당첨이나 유산상속의 운이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오늘은 기다리면 일이 어려워진다.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 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원망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다 못 하지만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오늘은 오늘은 돼지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통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이일 제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혼자서 일 처리를 하지 마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입구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날씨			19일(월)
서울 0/0	인천 0/10	춘천 20/0	23/26
23/26	23/26	22/25	
강릉 90/70	대전 20/0	전주 30/0	21/22
21/22	24/27	24/27	
광주 20/10	대구 80/60	부산 90/90	25/29
25/29	24/26	24/26	
창원 90/90	제주 6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4/27
24/27	24/27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1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